

34번째, 농기구이야기

곡식을 짚는 디딜방아



○ 편집 및 발행 :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발행일 : 2011.1.1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NH NongHyup

1. 디딜방아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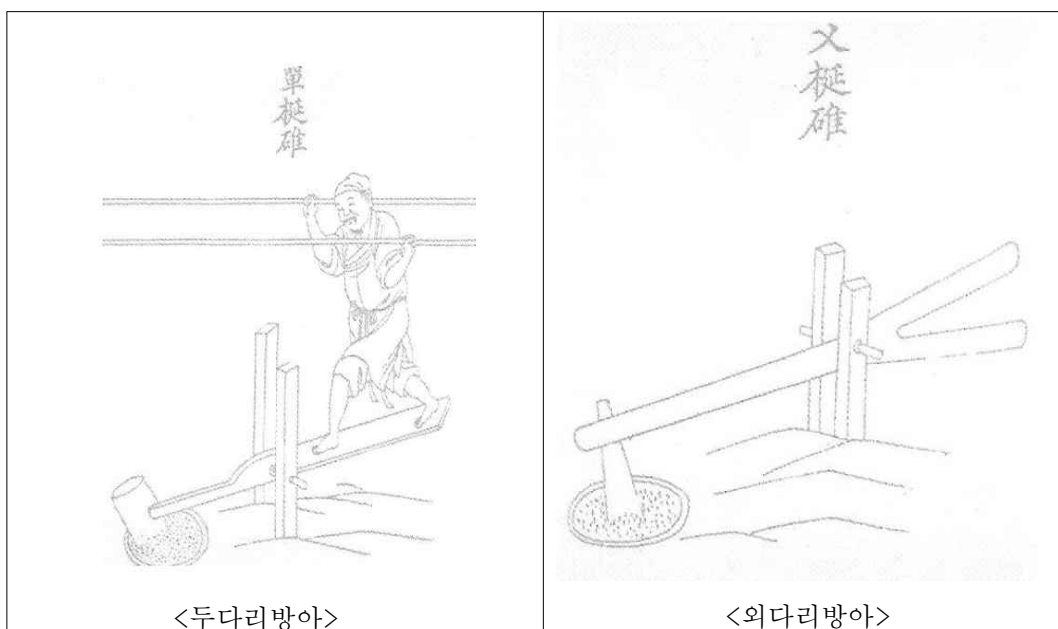
디딜방아는 발로 디더 곡식을 찧는 방아이다. 방아다리를 발로 디더서 곡식을 찧는다고 ‘디딜방아’라 하였다. 다른 말로 ‘발방아’라고도 한다.

디딜방아는 ‘절구’에서 나왔는데 두 손에 공이를 쥐고 곡물을 찧거나 뺨다가, 발로 방아다리를 딛게 된 것이다. 발로 방아머리를 들어 올렸다가 놓으므로 절구보다 훨씬 수월하다. 또한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천장에 달린 끈을 쥐거나 손잡이를 잡고 온몸의 무게를 싣는 까닭에 효과가 훨씬 크다. 디딜방아에 대한 이름은 곳에 따라 달라서 ‘겨름방아’, ‘드딜바우’, ‘들빠아’, ‘디딜바아’, ‘팔각방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2. 디딜방아의 종류와 용도

디딜방아의 종류에는 ‘외다리방아’와 ‘두다리방아’ 두 가지가 있다. ‘외다리방아’는 방아다리가 하나로 담징이 일본에 ‘외다리방아’를 전했다는 이야기로 볼 때, 이미 고구려 때에 널리 썼던 것 알 수 있다. 농업이 발달하고 방아 찧을 거리가 많아지면서 ‘외다리방아’보다는 많은 양을 찧을 수 있는 ‘두다리방아’로 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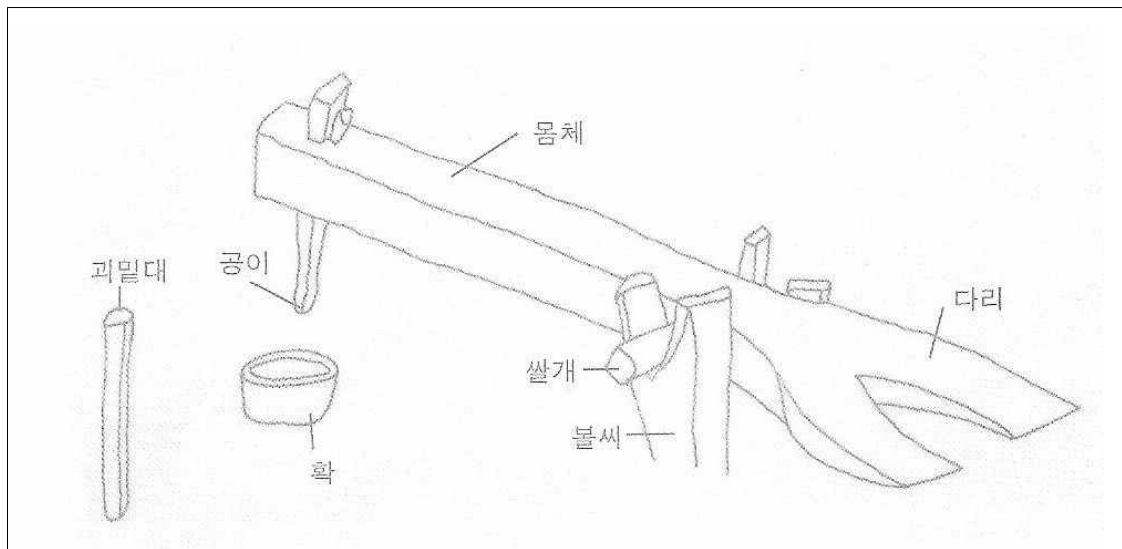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대만·동남아시아·네팔·서아시아 등지에는 ‘외다리방아’뿐이다. 우리나라만 ‘두다리방아’를 써왔다. ‘두다리방아’는 ‘외다리방아’보다 능률이 높았고, 방아 몸체가 무거운 만큼 곡식은 더 잘 찧어지게 된다. 디딜방아처럼 힘들고 단조로운 일을 두서너트 이야기를 나누거나 노래를 불러가며 일의 고달픔을 덜어냈던 것이다.



이외에도 디딜방아는 곡식을 찧는 이외에 떡을 찧거나, 고추를 뺑기도 하며, 메주콩을 이기는 등 그 활용이 많다.

3. 디딜방아의 부분명칭

디딜방아를 만드는 재료로는 참나무·느티나무·대추나무·박달나무·밤나무 등이 많이 쓰인다. 이 가운데 박달나무가 으뜸이고 밤나무는 버금간다. 우리의 조상들이 박달나무나 밤나무를 디딜방아감으로 선호한 데에는 단단한 성질 외에 나무 자체가 지닌 깊은 뜻을 높이 보았기 때문이다. 디딜방아를 짚을 때 나무뿌리 쪽을 방아머리로 삼고, 가지쪽은 다리로 사용한다. 머리가 무거워야 곡식이 잘 찧어지고 방아 자체도 오래간다.



< 방아의 부분 명칭 >

	명 칭	설 명
1	괴밀대	방아 확에서 곡식을 꺼내거나 방아를 쓰지 않을 때, 공이를 괴어 놓는 짧은 막대기.
2	불씨	디딜방아의 쌀개를 받치려고 몸체 좌우 양쪽에 기둥처럼 박아 놓은 나무. 강원도를 비롯한 적지 않은 지역에서는 돌로 대신한다.
3	쌀개	불씨에 가로 얹혀서 방아를 받치는 나무. 흔히 몸체 가운데에 꿰어둔다.
4	손잡이	방아를 찧을 때 손으로 잡기위해 기둥에 가로 걸어놓은 나무. 곳에 따라 ‘찌경나무’ 로도 불린다.

5	확	곡물을 넣고 찢거나 뺨는 작은 절구 꼴의 돌이다. 땅에 묻는다.
6	공이	디딜방아 머리에 달려서 곡물을 찢거나 뺨는 나무. 끝에 돌이나 쇠촉을 박거나 통째로 깎은 돌을 쓰기도 한다.
7	다리	머리 반대쪽의 발로 밟는 부분. 가위꼴로 갈라진 것은 두다리방아(양다리방아)라고도 한다. 곧은 것은 외다리방아라 부른다.
8	몸체	방아의 몸통 부분
9	방아틀	방아 다리끼에 네 개의 짧은 기둥을 세우고 가로목을 건너질러 꾸며서, 방아꾼이 올라서서 찢도록 만든 틀. 우리나라에는 적으며 중국과 일본에서 많이 썼다.

4. 디딜방아의 역사

디딜방아는 중국 사람들이 발명하였다. 디딜방아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 가운데 하나는 한(漢)나라의 양웅(揚雄)이 쓴 <방언(方言)>으로, 간단한 설명이 들어 있다. 비슷한 시기의 사유(史遊)도 <급취편(急就篇)>에서 풍구를 소개하는 가운데 디딜방아(히)에 대해 적었다. 우리의 디딜방아는 4세기 이전에 중국에서 들어왔다. 고구려 무덤의 벽 그림이 그 증거이다. 황해도 안악3호 무덤의 방아 그림 위쪽을 보면 중국 이름 그대로 ‘대(히)’ 라고 쓰였으며, 방아 형태 또한 매우 닮았다. 따라서 당시에 중국의 것을 본떠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여러 곳의 디딜방아는 모두 외다리방아이고 두다리방아는 우리의 발명품이다. 돌이 떨어져서 방아를 찢는 것보다 두서넛이나 예닐곱이 힘을 합치면 능률도 나고 고달픔도 덜어진다. 디딜방아의 종주국인 중국에서조차 두틀의 외다리방아를 놓고 쓰면서도 두다리방아를 만들지는 못했다.

우리가 두다리방아를 언제 발명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4세기의 고구려 약수리 무덤 그림의 방아는 두다리방아일 가능성이 높다. 또 요동성 무덤 그림에서는 갈라진 다리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이미 이 무렵부터 두다리방아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광언, 『디딜방아 연구』, 지식산업사, 2001.
 ———,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1969.
 이순수, 『농기구』, 보리, 2009.
 『한국농기구도감』, 2001,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